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인문·체육계)

[온라인]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예: 감사합니다. 등)
4. 답안지에 찍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5. 인문·체육계 문제지는 총 5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통일된 표기법 없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는다면, 문자 생활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어문 규범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바르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글을 쓰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어문 규범이라 한다.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서는 어떤 말을 쓰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표준어 사정의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발음을 표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맞춤법의 문제 등에 관해 통일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한다.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는 각 규범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각 규정이 담고 있는 규칙의 원리와 실재를 배워 국어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어문 규범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둘러싼 언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국어 규범에 기초한 정확성과 사회·문화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을 고려한 적절성을 갖추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지역 방언, 사회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말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이러한 방언 차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데, 표준어 규정은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 전자는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후자는 제2부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다.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를 사정하는 기본 원칙을 총칙에서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발음에 변화가 생겼거나 단순히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되어서 어휘 선택에 변화가 생긴 경우 실제 표준어 사정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총칙에 제시된 원칙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 모든 우리말 단어를 대상으로 표준어를 사정하게 되는데, 이에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 발음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발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바르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므로 평소애 늘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은 총칙 제1항에 명시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 방식이 근본 원칙이 되고, 거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덧붙여 있다.

그 외에도,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는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데 대한 규정인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을 두어, 국어 생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

“4시가 뭐냐, 네 시라고 써야 한다.” 선생님은 학생을 보면서 꾸짖었다. 말소리에 맞춘 표기가 자연스럽다는 뜻이자, 표기란

<뒷면에 계속>

그저 말소리를 받아 적는 구실을 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신문에는 “7쌍의 부부 중 5쌍은 출산했고, 1쌍은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쓰여있다. 이런 기사는 읽기에 걸끄럽다. ‘칠쌍’으로 읽다가 다시 ‘일곱쌍’으로 바꾸어야 한다. 머릿속 전광판에 ‘7(칠)’과 ‘일곱’이 동시에 깜빡거린다. 문자와 발음이 어긋나 생기는 일이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모른다’를 ‘1도 없다, 1도 모른다’로 바꿔 말하는 게 유행이다. 표기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어에 서툰 어떤 가수가 ‘뭐라고 했는지 1도 모르겠다’고 쓴 게 발단이었다. ‘1도 없다’는 한자어와 고유어라는 이중체계를 이용한다. 고유어 ‘하나’를 ‘1’로 적음으로써 새로운 말맛을 만든다. 이처럼 변화는 가끔은 무지에서, 가끔은 재미로 촉발된다. 새로운 표현을 향한 인간의 놀이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미꾸라지가 헤엄치는 웅덩이는 썩지 않는다.

말에도 말썽꾼이 있다. 보통 새말은 이미 있는 말을 재활용한다. ‘유리’와 ‘창’이 만나 ‘유리창’이 되고 ‘팔’과 ‘빙수’를 더해 ‘팔빙수’를 만든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자연스럽다. 그런데 말의 말썽꾼은 낱말의 목을 땡강 잘라 다른 말의 허리춤에다 이어 붙여버린다. 이를 혼성어라고 하는데, ‘라볶이(라면+떡볶이)’ ‘호캉스(호텔+바캉스)’ ‘강통령(강아지+대통령)’ ‘브로맨스(브라더+로맨스)’ 같은 말이다. 댓글이 엉망이면 ‘댓글진창’이고 김 씨가 엉망이면 ‘김망진창’이다. ‘텍스크(텍+마스크)’ ‘등드름(등+여드름)’ ‘언택트(언+콘택트)’는 앞말이 1음절이지만 뒷말의 허리를 잘라 붙였으니 같은 부류다. ‘짜파구리’는 혼성의 중첩. ‘짜파게티’가 이미 ‘짜장면+스파게티’의 혼성인데, 여기에 다시 ‘너구리’의 ‘너’는 잘라 버리고 ‘구리’만 붙여 ‘짜파구리’가 되었으니! 이러한 혼성 방식은 새말을 만드는 손쉬운 전략인지라 한 해 동안 생긴 신어 가운데 20%가 혼성어다. ‘너구리’를 잘라 ‘너’는 동맹이 치고 ‘구리’만 갖다 쓰다니! 말의 입장에서는 순교다. 어원이나 질서를 따지는 분들에게는 속쓰린 일이겠지만, 새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직 말맛에 살고 입에 탁 달라붙는지가 기준이다. 이런 말썽꾼들 덕분에 사는 게 아주 심심하지는 않다.

장바구니 하나면 여러 물건을 한 손에 들 수 있듯이, 단어도 문장이나 구절로 흩어져 있는 걸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약 방식의 단어 만들기에 욕심을 부린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움켜쥐고 싶은 마음. 날아가는 새를 잡았다는 느낌. 전에 없던 개념 하나를 탄생시켜 세계를 확장시켰다는 뿌듯함.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여 사건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단어가 많아지면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늘이 흐려지는 걸 보니 내일 비가 오려나 보다’라는 문장을 한 달 뒤에 똑같이 되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하호내비’라고 하면 쉽다. 매번 속을 까보지 않아도 되는 캡슐처럼 복잡한 말을 단어 하나에 쓸어 담는다.

게다가 이전에 없던 개념도 새로 만든다. ‘시원섭섭하다’, ‘새콤달콤하다’ 같은 복합어가 별도의 감정이나 맛을 표현하듯이 ‘웃프다’, ‘소확행’, ‘아점’도 전에 없던 개념을 선물한다. ‘갑툭튀, 듣보잡, 먹튀, 길끼빠빠, 엄근진(엄격+근엄+진지)’ 같은 말로 새로운 범주의 행태와 인간형을 포착한다. 애초의 말을 원상회복시켜도 뜻이 같지 않다. 발음만 그럴듯하면 독립한 자식처럼 자기 갈 길을 간다. 닳은 구석이 있어도 이젠 스스로 완전체다. 말은 지켜야 할 성곽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그러니 가뉘들 수 없다. 말은 퇴행하지 않는다. 그저 달라질 뿐.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다.

[다]

‘급식충’은 ‘학교급식’의 ‘급식’에 특정 부류의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접미사 격의 ‘충(蟲)’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요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중에는 스스로를 ‘급식충’이라고 부르는 이가 적지 않다. ‘~충’이 들어가는 말로 ‘진지충’이나 ‘틀딱충’ 같은 단어들을 접해본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재미없고 진지하기만 한 사람이라는 의미(진지충)나 노인 세대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의도(틀딱충)가 담겨 있다. 급식충은 해당 의미 범주에 속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일컬을 때 즐겨 쓰인다는 점에서 ‘진지충’이나 ‘틀딱충’ 같은 말과 차이가 있다.

‘기모찌’는 당시 부상하기 시작한, 급식충들이 즐겨 쓰는 급식체 단어의 하나였다. 급식체는 급식충들이 은어처럼 쓰는 말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나는 인터넷에서 ‘기모찌’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다. 자료들을 보면서 급식충들이 쓰는 급식체가 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급식체로 분류되는 표현들에 특별히 부정적인 어감이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급식체 같은 청소년 세대 특유의 언어가 기존의 언어 질서나 규범을 파괴하는 데 일조할 뿐이므로 되도록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이들은 말이나 글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ㅇㅈ’이나 ‘땡작’ 같은 급식체 표현들을 단순한 언어유희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규범을 해치는 독소처럼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언어의 발달사에서 잔소리꾼이나 언어 불평자는 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말이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말 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 쓴 글을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다. 정체불명의 외계어 같은 말들이 널리 쓰이면서 우리 고유의 언어 체계가 어지러워지고 있다. 주범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말들이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기술과 이에 따른 소통 수단들이 늘어날수록 일상적인 언어생활이 견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이처럼 새말들에는 불통 언어, 한글 파괴 언어, 국적 불명의 언어와 같은 낙인이 찍힌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말들은 사용층과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단어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새

<다음면에 계속>

말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극히 자연스러운 표준어처럼 쓰이는 ‘가성비’, ‘식감’ 같은 말은 태어난 지 열 살이 채 안 된 젊은 말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우리에게 신조어 느낌을 거의 풍기지 않는다. 나는 이들이 표준어로 등재 될 날이 머지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 세대 특유의 언어를 다른 세대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사실을 세대 간 융화와 공감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전쟁의 승자는 청소년 세대이지만, 그 전 리품은 청소년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누릴 수 있다.

[라]

현대의 디지털 시대는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독서 환경도 달라졌다. 전자책과 소리책 같은 미디어 출판물들은 상호 매체적, 상호 문화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독자들은 때와 장소, 목적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독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변화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전자책이 유통 구조 변화에 가깝다면, 소리책은 소통의 변화에 가깝다.

고전적인 독서 방식은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문자로 종이에 기록하면 독자들이 눈으로 읽는 방식이다. 독자는 이 암호 같은 기호들을 정서와 심리를 동원해 상상하고 문자 이전의 원형인 말을 복원함으로써 그 실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독서의 순간에 들어갔다. 여기서 문자를 암호 같다고 하는 까닭은, 글에는 화자의 음색, 음의 고저, 장단, 약센트, 억양, 리듬, 템포 등과 같은 말의 구성 요소와 그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감정의 상태가 악보처럼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 감수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르게 읽힌다. 몰입의 정도에 따라 이해도도 차이가 난다.

소리책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문화와 생활 패턴에 잘 맞는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패턴 때문에 오로지 책 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일상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들로 채워졌고, 그들은 멀티 플레이어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점점 독서와도 멀어졌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책장을 넘기며 문학을 탐닉하는 사색의 시간은 낯선 풍경이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책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소리책이 부상하고 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혹은 몸이 좋지 않아서 장시간 책 읽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운동이나 운전과 같은 단순한 육체 활동의 순간에 독서를 병행하고 싶은 사람, 종이책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 세대나 풍부한 감성 표현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의 방식으로 책을 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소리책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엄청난 양의 지식이 디지털화되면서 인문학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던 개별 ‘텍스트 읽기’와는 다른 ‘데이터 읽기’라는 새로운 독법이 요구되고 있다. 에레스 레이든과 장바티스 미셀은 그들이 개발한 ‘구글 엔그램 뷰어(Google Ngram Viewer)’를 이용하여 구글이 디지털화한 800만 권의 도서를 대상으로 특정 키워드의 시대별 빈도 변화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변화를 정량화하였다. 그리고 문화와 역사 연구에 도입한 계량적 방법을 ‘컬처로믹스(culturomics)’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800만 권이라는 방대한 양의 책을 단순히 읽어내는 방법인 셈이다. 컬처로믹스와 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독법은 프랑코 모레티가 제안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개념에서 출발한다. 모레티는 세계문학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어 온 아날로그 방식의 ‘꼼꼼한 읽기(close reading)’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모레티에 따르면, 주관적인 관점으로 극소수의 정전(canon)에 의존하여 면밀하게 읽는 전통적 독법인 ‘꼼꼼한 읽기’는 정전에 포함되지 못한 수많은 작품을 ‘도살장’으로 보내는 것이다. 즉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인류가 생산한 세계의 모든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레티는 문학 자료를 디지털로 구축하게 되면, 첫째, 그동안 정전이 아니라고 하여 역사 속에서 잊힌 문학작품들도 폭넓게 볼 수 있고, 둘째, 수천만 권의 책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으며, 셋째, 개별 작품에서 알 수 없는 작품 원리, 형태, 구조 등의 상호연결성, 작품들의 생산과 소비 법칙 등도 조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레티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소수의 텍스트에만 의존해 온 읽기 전통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모레티가 제시한 ‘멀리서 읽기’라는 독법은 그 후에 매튜 자커즈의 ‘거시 분석(macroanalysis)’, 캐서린 헤일스의 ‘기계 읽기(machine reading)’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 ‘거시 분석’과 ‘기계 읽기’ 모두 ‘꼼꼼한 읽기’라는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화된 방대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같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일스는 홀거 피츠시와의 대담을 통해, 문학 연구에서 “디지털 방식의 독해는 방대한 문학 자료에 대한 양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독법은 문학 연구에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뒷면에 계속>

- * 컬처로믹스(culturomics): 문화(Culture)와 생물체(-omics)의 합성어로, 언어 및 문화 역사를 분석하는 구글의 연구 프로젝트 명칭.
- *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디지털로 구축된 자료를 검색 기법과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읽는 방식.
- * 꼼꼼한 읽기(close reading): 종이책을 읽는 방식.
- *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원문자료]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 또는 기술.

[바]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사]

어느 겨울 아침 나는 토론토 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인 잭먼 스쿨의 5학년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이론과 테크놀로지를 실험 중이었다. 벤저민 피블스 선생은 3명의 학생에게 오늘 아침 인쇄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읽게 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나는 학교가 노트북과 아이패드를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도 아이들에게 종이로 기사를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피블스는 전자기기로 기사를 읽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었는데도 학생들 스스로 종이를 선택했다고 대답했다. 이 기사들도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학생들에게 굳이 기사를 출력해서 읽는 이유를 물었다. 귀여운 티셔츠를 입은 여자아이가 말했다. “종이에 글이 쓰여 있어야 제대로 된 느낌이에요.”

다른 학생은 태블릿에는 형광펜을 칠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뭔가를 손에 들면 완결된 느낌을 주거든요.” 곧 나는 종이가 더 좋다고 아우성치는 9살짜리 아이들에게 에워싸였다.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기 좋아요.” “아이패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유리판 위에 손가락을 대는 것보다 종이에 닿는 느낌이 더 좋아요.” “집중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한 여자아이는 종이책을 읽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로서 책을 읽으면 창의성에 제약이 받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책의 공간적 제약이 더 나아요.”

토론토 라이어슨 대학교의 조앤 맥네이시 박사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독서 습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의 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맥네이시는 그들을 관통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즉 학생들은 디지털 중심의 신기술에 대한 저항 때문이 아니라 종이 교재로 하는 것이 공부가 더 잘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종이책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네이시가 말했다.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일이 많지요. 종이 교재로 배우는 것이 훨씬 간단해요. 이 아이들은 테크놀로지 오락을 즐기는 데는 익숙하지만 학습용 테크놀로지에는 능숙하지 않아요.”

<다음면에 계속>

맥네이시의 연구와 같이, 계속 등장하는 연구 결과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디지털 포맷보다 종이 학습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아이들의 종이 사랑을 뒷받침한다. 이런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종이책이 좋은 이유로 주로 드는 것들은 책면 스쿨의 아이들이 말했던 것들과 똑같다. 즉 종이책이 내용을 탐색하기 쉽고 메모나 표시를 남기기도 쉬우며 더 믿을 만하다(교과서는 고장 나거나 작동을 멈추거나 본문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훨씬 다양하게 쓰이기도 한다(책은 돌려볼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고, 중고로 사고팔 수도 있다). 한마디로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이 학습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노트북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금지하고 종이책을 읽고 종이 위에 메모하는 것……. 이 모두가 실제로 학생들의 성적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니 왜 종이책 읽기의 아날로그 방식을 포기하겠는가.

[문제 I]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 끝 >